

- 부산 영어 방송 -

「The Interview」 구청장 인터뷰

- ◇ 프로그램 : The Interview
- ◇ 방송시간 : 2020. 2. 18.(화) 11:00 ~ 12:00
- ◇ 주 파 수 : FM 90.5MHz, FM 103.3MHz



부산광역시 금정구
Geumjeong-gu, Busan Metropolitan City

질문 1

금정구가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됐고요. 부산시 여성가족정책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금정구의 여성정책,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걸까요?

A. 지난해 금정구는

정책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정책,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구군 여성가족정책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적인 보육 시설 확대와 초등돌봄공간 실현 등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조성과 여성안심귀가길 조성,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등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고 대학교 학생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 등 금정구만의 섬세하고 현실적인 가족정책이 주목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재가복지전문가와 건강지원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미취업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그리고 기업 간의 협약을 통한 여성친화약속기업 발굴 등 근무여건향상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을 실감하는 금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

구청장님은 취임 때부터 가족친화적인 금정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금정구의 아파트관리비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낮게 나왔다고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A. 금정구는 구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금정구민 전체의 삶의 수준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후 부산시 최초로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꾸려서 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법이나 공사방법, 회계나 장기수선계획 등 아파트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향을 컨설팅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총 34차례나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전문가가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단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컨설팅을 의뢰한 아파트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구요.

올해는 2월 현재까지 벌써 9차례나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도 시작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입소문이 나서 아파트들의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공사를 위해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이 공사금액이 과연 적절할까 정말 맞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럴 때 공사 입찰 전에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적정 공사금액을 자문해 드리고, 저희가 자문해 드린 적정가격을
입찰하실 때 상한가로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12개 단지에 계약원가 자문을 해드려서
총 3천 5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은 전기화재가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을 선정해 전기 전문가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기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해드리는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아파트에서 실천 가능한 절감 노하우와 각종 지원 사업을 소개해
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가 알뜰하게 쓰이도록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구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금정구가 부산시 최초로 해나가고 있고
공동주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금정구 관리비가 전국 최저수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직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 인지요?

A. 올해도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동 대표 선출이나 관리규약 개정을 전자투표로 실시하면 투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입주민 투표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 덕분에 아파트 운영하실 때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된 단지를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답변 해드리는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역량과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업은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 실무자 교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올 4월부터는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단지가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제도도입 초기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새롭게 관리비 공개대상이 된 단지들을 직접 찾아뵙고
회계 관련 실무 교육을 해드립니다.
교육을 통한 관리비 공개 제도의 정착으로
입주자의 알권리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향상이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신규 사업들도 모두
부산 최초로 우리 금정구가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질문 4

구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책을 많이 펼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집 앞 10분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작은도서관이 따뜻한 공동체 복원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 확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작년 한해 6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어서 제가 취임할 당시 23개였던 작은도서관이 현재는 33개관으로 확장되었으며, 2022년까지 작은도서관 40개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르신특화 도서관인 ‘은빛사랑채’와 만화특화 도서관인 ‘부곡1동 작은도서관’, 구서1동과 선두구동 주민센터 내 북카페형 작은도서관과 구서동 도시숲에 ‘구서꿈숲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지역 대표기업인 파크랜드가 투자한 공립 작은도서관 ‘금정 북파크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금정구 작은도서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총 4개의 작은도서관이 개관할 계획인데요. 머드레 작은도서관이 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드게임 기반 특화된 작은도서관과 온천천 작은도서관, 서3동 셋골마실 생활문화센터와 금사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교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5

그 외 2020년도 가족친화적 금정구를 만들기 위한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A. 올해는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육 인프라를 확장할 국공립어린이집 2곳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경영난 등으로 폐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을 부산도시공사의 기탁금으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공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정보의 산실로 보육에 관한 정보 전달과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보육컨설팅 등 체계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부산시 최초인 소정아이꿈마당 개소에 이어 남산동에 초등 돌봄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준비하는 등 2022년까지 총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육아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명제의 실천인 동시에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가족 친화적 금정구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6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리 구는 침체된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권침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자 친화 거리를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시작으로 버스킹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노점 질서를 정착시키고 있고 소상공인 컨설팅과 창업 지원, 금연거리 지정 등 다양한 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해서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질문 7

요즘은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생활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소개하고 싶은 금정구 자랑거리는 무엇이고, 이런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A. 최근 주요 관광동향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처럼 살아보기, 덜 알려진 숨은 명소 찾기 등 일상 같은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구는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생활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의 다변화 추구를 목표로 일상이 여행이 되는 금정 로컬 여행하기인 ‘어디든, 금정여행’,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여행인 ‘햇플공간 탐방’, 관광사진 공모전, 관광후기 이벤트, 현지 살아보기형 생활관광인 「별밤 가족캠핑」, 여행코스 따라 즐기는 「스탬프 투어」 등 금정의 일상을 여행하는 생활관광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정구만의 특색을 담은 대표관광 육성을 위해서 생태테마 관광사업인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역사관광자원을 이용한 금정산성 수호대 역사여행 및 18,845 금정산성길 워킹페스타, 종교힐링투어 및 종교문화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관광객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관광 콘텐츠 및 새로운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우리 구 대표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질문 8

최근에는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죠. 이 상은 어떤 상이고,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신 걸까요?

A.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된 '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취지가 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여서 전파하는 것에 있었던 만큼,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는 구정방향 아래 구민과 '소통'하며 '협치'해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바람직한 행정의 구현으로 인정받은 것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기업인 (주)파크랜드와 손잡고 북카페형 복합문화공간인 '금정 북파크'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하고, 부산대학교의 우수한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한 시민인문 아카데미, 그리고 금정 북 페스티벌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민관학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도모한 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등 유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구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시민청결운동인 '금정클린지킴이'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것이 지방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9

올 한해 구정 방향과 목표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A.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첫 해인 2020년을 맞아,
더 많은 구민과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서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이 행정의 주체로서 구정 정책의 중심이 되는,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올해 5개 목표를 통해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 시설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해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정도서관과 2021년 개관 예정인 금샘도서관,
그리고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도서관들이
문화소통공간으로써 따뜻한 공동체 복원의 거점 역할을 하여
도서관에 가는 것을 즐거운 일상으로 만들고,
금정의 다양한 교육과 예술, 문화자원을 활용해
‘구민이 감동하는 교육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정의 자연과 종교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시행하며,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성장하고 공유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 체계 기반을 마련해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힘써
‘구민이 행복한 착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을 펼치며
‘개방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금정구 직원 모두는
소통·공감·혁신으로 하나 되어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10

마지막으로 부산영어방송 청취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저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틈을 내서
금정구의 구석구석과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명품 금정구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임 3년 차 더 많은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그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서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정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ope everything goes well.
Thanks for the invitation.